

- … 본회가 주최한 …○
- … 제110회 발명교실 …○
- … 이 지난 4월 10일 …○
- … 발명잡려관 연구실 …○
- … 에서 개최됐다. 매 …○
- … 월 둘째 토요일 오 …○
- … 후 1시 30분에 개 …○
- … 최되는 발명교실은 …○
- … 이 달에도 1백여명 …○
- … 이 참석하여 성황을 …○
- … 이루었다. 이날 발 …○
- … 명교실에서는 (주) …○
- … 용진버먼드대표 한 …○



조립식 소파 발명가

용진버먼드 한영준사장

까무잡잡한 피부에 반짝이는 금테 안경. 말끔한 신사복 차림의 한영준 사장님. 평상시엔 작업복 차림의 단순한 모습이지만 눈매만큼은 번뜩이는 기질을 여전히 발산하고 있었다.

자연환경과 생활문화가 번창하고 발달 할수록 편리함 뒤에는 적든 크든 항상 환경공해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환경공해는 자동차의 시트에도 예외는 없었다. 한사장에게 있어서 환경파괴는 그야말로 자신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버려진 탓에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가정용 가구류

예를 들자면, 소파나 침대 매트 그리고 자동차 시트 등 대형 복합쓰레기의 처리분해에 대해 고심하게 되었다.

여기서 얻은 생각이 폐품 일지라도 버려지지 않고 재생하여 다시 활용하도록 개발하여 새로운 쿠션문화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오늘날에는 우리생활속에 서구식 쿠션문화가 깊숙히 파고 들어와 있다. 이런 서구식 쿠션문화가 잘못 도입되어 편리성이나 내구성, 경제성 보다는 외관상의 모양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고품을 선호하게 되고 외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지나친 과소비를 불러 일으켜 사회적

인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파류는 목재형틀에 못과 호치켓으로 외장처리를 하고 속에는 페타이어 튜브, 마대, 합지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처짐을 방지해 주도록 만들어 졌다. 그러다 보니 얼마동안 사용해보지도 못하고서 형틀이 틀리고 내구성이 취약하여 처짐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 하겠다. 또한 집안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색의 변화라도 주고 싶을경우 천갈이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외장커버를 뜯어 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소요되므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되기 마련이다.

한사장은 이러한 기존의

發明教室

成功事例 등 發表

- ... 영준 사장의 성공사 ...○
- ... 레발표에 이어 김관 ...○
- ... 형 본회 상근이사의 ...○
- ... 「발명의 발상기법 ...○
- ... 과 사업」에 대한 ...○
- ... 강의와 정태런 변리 ...○
- ... 사의 「산업재산권 ...○
- ... 제도」에 대한 강의 ...○
- ... 와 토론이 있었다. ...○
- ... 발명가의 성공사례 ...○
- ... 를 간추려 소개한 ...○
- ... 다. ...○
- ... <이두성 記> ...○



문제점을 인식, 금속제품이 갖는 기능을 살려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폐기시키지 않으며 재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파를 연구하게 되었다.

한사장이 개발한 소파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된 특수 공법으로 하중이 가해지는 모든 부위를 피아노 특수 강선과 인장 스프링으로 쿠션을 유지해 주도록 만들었으며 형틀이 연결되는 모든 부위는 육각렌지볼트로 결합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외장 커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썩었다가 벗길 수 있도록 자크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파는 골격이 쳐지거나 부서지지 않아 외장 커버만 구입하여 칼라의 변화를 줌으로써 항상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 천이 더럽혀졌을 경우

에는 소비자가 직접 커버를 벗겨서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비용면에 있어서도 경제적이라 하겠다.

한사장은 이 제품을 국내에는 판매하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여 오다가 지난 91년 12월 실용신안 제058969호와 제058970호로 등록을 받아 당사의 고유 브랜드인 버먼드(BEAUMOUNDE) 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첫 공개를 하게 되었다.

그가 지금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땀을 흘렸다. 우선은 자동차를 알아야 했고, 의자를 연구해야 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살아야만 했다.

발명의 기쁨은 누구나 그러하듯이 그런 땀들을 흘린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다.

한사장도 예외는 될 수 없었고, 그 또한 이룩해 냈다.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후세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 주고

자 했던 마음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러한 취지 덕택 인지는 몰라도 소비자들의 반응도 놀라왔다.

지난 3월달에는 모TV 방송에 출연하여 버먼드 소파가 처음으로 공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는 아직 판매망이 구성되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하루 300여 통의 격려와 성원의 전화를 해주고 있다하니 하루를 25시간씩 뛰어도 모자랄 형편이라고 한다.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은 것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더욱 훌륭한 발명품은 개발하고자 하는것이 그의 꿈이다.

<♣>

112회 발명교실

- 1993년 6월 12일
오후 1시 30분
- KOEX 별관 2층